

조경식물 파초(*Musa basjoo*) 식재 양상과 그 의미

- 조선시대 옛 그림 분석을 중심으로 -

노재현* · 김영숙** · 고여빈**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 **우석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Aspects and Significance of *Musa basjoo*, a Landscaping Plant

- Focused on Analysis of Old Paintings of Chosun Dynasty -

Rho, Jae-Hyun* · Kim, Young-Suk** · Goh, Yeo-B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Graduated School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fer the aspects and significance of *Musa basjoo* of latter part of Chosun Dynasty by analyzing the planting tendency and planting location of *Musa basjoo*s drawn in total 77 old painting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intings where *Musa basjoo*s appeared, while trying to understand symbolic meanings of floral languages as well as the images and significance of *Musa basjoo*s which appeared in the prose and poetry of Chosun Dynast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With its floral languages of ‘waiting’, ‘parting’ and ‘beauty’, *Musa basjoo* represented the wealth and resuscitation and it aroused the elegance of hermits in its Taoistic sense. And it also represented ‘the unworldliness to get out of transient human affairs’ in its Buddhistic sense. *Musa basjoo*s which appeared in ‘Garden Custom Painting(庭園雅集圖)’, ‘Gosa Figure Painting(故事人物圖)’ and ‘Gyehoe Painting(契會圖)’ is considered a device to increase the unworldly atmosphere of gardens and to dignify the elegant meetings of scholars, reflected by the high appearance frequencies of cranes and deer. And it seems that the meaning of *Musa basjoo* in certain paintings like ‘Life-time Paintings(平生圖)’, ‘Castle City Painting(盛市圖), and ‘Cultivating and Weaving Painting(耕織圖)’ is an aspiration for wealth and prosperity, and the *Musa basjoo*s planted in temples are considered to have symbolic meanings of aspiration for ‘Salvation through Belief’ as well as a unworldly meaning which reminds the transiency of human affairs. In addition, the expected effect of experiencing ‘the sound of rain falling on the leaves of *Musa basjoo*’ has been pursued, which can be confirmed by the fact that *Firmiana simplex* with wide leaves similar to *Musa basjoo* can be frequently spotted near the houses. Meanwhile, *Musa basjoo*s seem to have been planted mainly in front garden or side garden around detached house and *Musa basjoo*s inside the houses seem to have been planted mainly in right side when viewed from the entrance, in relation with the location of bedrooms where it is easier to hear the sounds from the right side of the environment. And the paintings where *Musa basjoo*s appear with strange rocks and bizarre stones among other things have greater part of all the paintings, which is considered a kind of intentional landscaping and a product of mixed materials for elegant appreciation. And the major characters of the painting were involved in the activities of scholars such as arts, and the activities of minor characters were greatly related to their everyday lives. *Musa basjoo* of Chosun Dynasty in 17th and 18th century was one of the symbols necessary for description of gardens. And it provided the images of rainy scenes together with scholar culture which had a meaning of self-discipline, and it is assumed that the planting

* Corresponding Author : Rho, Jae-Hyun, Dept. of Landscape &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565-701, Korea. Phone : +82-63-290-1494, E-mail : orchid@woosuk.ac.kr

of *Musa basjoo* with the spirit of cease lessen deavor of a new leaf pushing up the tree and the spirit of resuscitation had the same trace of wheels in the city space of our country as the decline of scholar culture of Chosun Dynasty.

Key Words : *Musa basjoo*, Garden Culture, Old Paintings, Plant of Meaning, Icon

국문초록

파초의 상징적 의미와 이미지 그리고 식재 의미를 개관하는 한편 총 77엽의 조선시대 옛 그림 속 파초의 식재경향과 식재위치 그리고 파초가 등장하는 도엽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파초 식재의 양상과 그 의미를 추찰(推察)할 목적으로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초는 기다림과 별리(別離), 미인 등의 꽃말뿐만 아니라 부귀와 기사회생(起死回生)을 상징하는 대용물이었으며, 도교적 의미로는 선인(仙人)의 풍취를 자아내는 대상이었다. 또한 불교적 언어로는 덧없는 인간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속(脫俗)의 상징물이기도 하였다. 정원풍속도 및 고사인물도 또는 계획도에 빈번히 등장하는 파초는 탈속적 정취를 높이고 선비들의 아회(雅會)를 품격화하기 위한 소도구이며 장치로 보이는 바, 학과 사슴의 등장빈도가 높음은 이러한 경향을 반증한다. 또한平生圖, 城市圖, 耕織圖 등 특정 도상 속 파초의 의미는 부귀와 번영을 염원한 것으로 보이며, 사찰에 심겨진 파초는 인간사의 무상함을 환기시키는 탈속적 의미와 함께 ‘믿음의 구법’을 염원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파초 식재를 통한 기대 효과로 ‘비가 내릴 때 파초 잎을 울리는 소리경관’의 체험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넓은 잎을 지닌 (벽)오동나무 또한 가옥 근처에 파초와 같이 빈번히 발견됨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파초의 식재장소는 주로 사랑채를 중심으로 한 전정이나 측정에 주로 단식이나 모아 심기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 내 파초 식재 위치는 우(雨)경관의 청음(聽音)이 용이한 침실 근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파초와 같이 등장하는 괴석 또는 암석의 표현은 일종의 의경(意景) 구축의 수단이며, 아취 있는 완상(玩賞)을 위한 소재 조합의 산물로 보인다. 또한 옛 그림 속 등장인물은 주연의 경우, 풍류 등 선비활동과 관련이 높았으며, 조연의 주요 행위는 생활활동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조 17·18세기 파초는 아취 있는 정원의 구성과 묘사를 위한 긴요한 상징물이었다. 파초 식재문화는 선비들의 수양론적 의미대상이기도 하였다. 우경적(雨景的) 이미지 제공 및 자강불식(自彊不息)과 기사회생의 정신을 담았던 조선조 선비문화의 퇴조와 함께 파초는 우리나라 도시공간에서도 그 궤적을 같이 하여 퇴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파초, 원림문화, 옛 그림, 식재의미, 도상

I. 서론

조선 후기는 폭넓게 형성된 지식인층에 의해 정원문화가 애호되고, 정원 취미 또한 크게 성행한 시기였다(안대회, 2004; 정민, 2005; 이종목, 2006; 심우경, 2006). 이 시기 원예문화는 중국 명말(明末) 강남지방 사대부의 원림문화 취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김대중(2006)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중국 원산 외래식물의 도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등(정민, 2007) 중국의 원예문화적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다. 이 중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남방계 식물인 파초(*Musa basjoo*)나 종려(*Trachycarpus excelsa*)를 정원마다 경쟁적으로 심던 정황으로, 이는 여러 사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의 파초 식재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부 사찰 등에서만 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선 후기 파초 식재의 붐(bloom)은 매우 놀라운 문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파초는 중국 아열대지방이 원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속적인 월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긴요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 문인들의 계획도나 정원도를 보면 으레 파초가 표현된 인상적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 조선 후기 도시문화가 팽배했던 경화사족(京華士族)들의 한양 원림의 특성을 논의한 정봉구(2009)에 의하면 원림 내 사랑채 영역이 분화하면서 실내아회를 위한 접빈시설과 고동서화의 수장 및 감상 위한 시설이 마련되었다. 이 때 사랑채 앞마당은 화분과 석연지, 괴석 등과 함께 국화, 파초, 매화, 대나무, 벽오동을 심어 문인의 아취를 표현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는데, 파초 식재는 선비들에게 있어 완물상지(玩物喪志)의 주요 대상이자, 원림문화를 추구하기 위한 중요 소재였다. 이서구(李書九)¹⁾가 파초의 별칭인 ‘녹천(綠天)’을 당호(堂號)로 삼아 녹천관(綠天館)이라 했듯이 파초는 조선 후기 선비들의 정원 문화 속의 중요한 조경식물로 자리 잡고 광범위하게 보급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화 과

정의 격변기를 거친 지금 파초는 우리의 도시공간 내 조경식물로 거의 인식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서 멀어져 버렸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파초 식재의 대중화 붐 속에는 어떠한 문화현상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 반면에 파초 식재의 퇴락과 몰락의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옛 정원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적 관련 시문이나 그림은 정원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심우경, 2006)가 됨은 그나마 매우 반가운 일이다.

본고는 조선시대 조경식물 이용성향과 그 함의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 파초 식재의 양상과 그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당시의 조경식재문화와 식재관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그림 속 파초의 식재 경향과 식재 위치 및 파초가 등장하는 도엽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파초 식재의 양상과 그 의미를 추출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표 1. 분석 대상 그림의 개요

No.	작가	제작시기 (생몰연대)	도엽명	크기(cm)	형식	소장자	비고
1	정선	1676~1759	仁谷幽居	27.4×27.4	지본 담채	간송미술관	
2	정선	-	척재제시	33.0×28.5	건본 채색	간송미술관	
3	정선	-	橫渠詠焦	24.4×29.0	건본 채색	독일 성오틸리엔수도원	
4	윤덕희	1685~1776	독서하는여인	20.0×14.3	비단 수묵담채	서울대학교박물관	
5	심사정	1707~1769	山水圖	-	-	-	
6	심사정	-	田家樂事	31.2×101.5	지본 담채	개인	
7	심사정	1758 作	傲沈石田山水圖	101.5×31.2	-	개인	
8	심사정	-	芭蕉圖	-	-	-	
9	심사정	-	芭蕉草蟲	42.5×32.7	지본 수묵담채	개인	
10	심사정	-	敗蕉秋猫	23.0×18.5	비단 채색	간송미술관	
11	심사정	-	파초와 잡자리	18.8×28.6	지본 담채	서울 옥선	
12	심사정	-	방심석전산수도	61.2×129.4	지본 담채	국립중앙박물관	
13	이인상	1710~1760	雅集圖	45.7×24.2	지본 담채	국립중앙박물관	
14	강세황	1712~1791	碧梧清署圖	30.5×35.5	지본 수묵담채	개인	
15	김홍도	1745~?	檀園圖	78.5×135.3	수묵 담채	국립중앙박물관	
16	김홍도	-	담와 홍계희平生圖	76.7×37.9	건본 담채	국립중앙박물관	致仕
17	김홍도	1778	西園雅集圖 6곡병	122.7×287.4	비단 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	6곡병(2곡)
18	傳 김홍도	-	西園雅集圖 3	-	-	-	
19	傳 김홍도	-	西園雅集圖 4	-	-	-	
20	김홍도	1778	西園雅集圖	26.9×81.2	지본 담채	국립중앙박물관	扇面
21	김홍도	-	月下青松圖	34.7×29.2	지본 수묵담채	개인	
22	김홍도	-	月下吹笙	27.8×23.2	지본 담채	간송미술관	
23	김홍도	-	전한화도	-	-	-	
24	김홍도	-	萬古青山圖	125.0×40.5	건본 담채	호암미술관	주부자시의도-3곡
25	김홍도	1800 作	生朝去鰲圖	125.0×40.5	건본 담채	호암미술관	주부자시의도-6곡
26	김홍도	-	焦園試茗圖	-	-	간송미술관	
27	김홍도	-	芭蕉	-	-	-	殷保感烏 本朝
28	김홍도	-	布衣風流圖	37.0×27.9	지본 수묵담채	개인	
29	김홍도	18C 말	화훼도	138.0×47.5	지본 수묵담채	-	
30	김홍도	-	常山閑談圖	-	-	호암미술관	

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

조선시대 미술사 ‘관련서적 및 도록’(熊谷宣夫, 1932; 동산방, 1982; 이양재, 1996; 이수옥, 1999a·1999b; 유흥준과 이태호; 2000; 정병모, 2000; 부르그린드 응만, 2004; 박혜정 등, 2005; 김지호, 2006; 고연희,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김정희, 2009; 이정아, 2009; 장진희, 2009; 최완수, 2009)과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조선시대 제작된 그림 중 파초가 묘사된 작품을 장르 구분 없이 무작위로 총 77점을 추출하였다(표 1 참조). 선정된 도엽 중에는 김홍도 또는 전(傳) 김홍도작품으로 알려진 도엽이 16엽(2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사정의 도엽이 8엽(10.4%), 장승업의 도엽이 6엽(7.8%), 이재관

표 1. 계속

No.	작가	제작시기 (생몰연대)	도업명	크기(cm)	형식	소장자	비고
31	김득신	1754 作	出門看月圖	25.3×22.8	지본 담채	개인	
32	송암	1794 作	西園雅集圖	518×133.3	지본 채색	독일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	제4폭
33	신윤복	1811	사행기록화	122.5×43	건본 채색	일본 개인소장	3폭 중 하나
34	정조대왕	1752~1800	정조대왕필芭蕉圖	51.3×84.2	-	동국대학교	
35	이방운	1761~?	오동나무 아래에서	27.0×40.0	지본 수묵담채	-	
36	이방운	-	芭蕉高土圖	-	-	-	
37	이방운	-	夏景山水圖	25.6×20.1	지본 담채	국립중앙박물관	筆入此室處圖
38	이수민	1819 作	夏日酒宴圖	54×40.5	지본 담채	개인	
39	이자실	1550 作	觀音三十二應身圖	235×135	건본 채색	일본 지은원	
40	이재관	1783~1837	午睡圖	122.3×56.3	족자지본 담채	호암미술관	
41	이재관	-	芭蕉葉題詩圖	59.0×37.0	지본 채색	고려대학교박물관	
42	이재관	-	芭蕉下仙人圖	139.4×66.7	지본 담채	국립중앙박물관	
43	이재관	-	산처아차도	-	-	-	
44	정약용	1762~1836	茶山草堂圖	27.0×19.5	한지	개인(이재환)	
45	장승업	-	산수영모도	-	-	-	
46	장승업	1843~1897	蕉園芝鹿	74.0×31.0	족자비단 채색	간송미술관	
47	장승업	-	芭蕉神仙圖	-	지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48	장승업	-	芭蕉遊猫圖	-	-	개인	화조영묘 10첩병풍
49	장승업	-	오폭병풍도(가칭)	-	-	-	
50	장승업	-	화조병풍(가칭)	-	-	-	
51	김이혁	1803 作	高山九曲潭摠圖	150.5×45.6	족자지본 담채	간송미술관	
52	소치 허련	1809~1892	芭蕉圖	34.5×66.0	장지 담묵	개인	
53	우진호	1832~?	농촌생활도	128×32.4	비단 담채	북한 소재	
54	석유뢰	-	林深屋樓圖	-	-	-	
55	작가미상	1410 作	芭蕉夜雨圖	96.0×31.4	지본 수묵	일본 개인	
56	작자 미상	-	蘭亭契會圖	142×488	건본 담채	-	
57	작자 미상	1604 作	宣廟朝諸宰慶壽宴圖	32.9×25.0	지본 채색	문화재연구소	화첩, 제4장면
58	작자 미상	19C	玉壺亭圖	150×280	지본 채색	개인	
59	작자 미상	1755 作	목관본 瀟灑園圖	25.5× 36×2	양각 목판	-	
60	작자 미상	-	芭蕉	41.2×31.5	지본 수묵	국립중앙박물관	(전 상고제)
61	작자 미상	-	鶴林山居	91.5×56.5	지본 담채	-	
62	작자 미상	20C 초엽	平生圖 1	110.2×51.5	지본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書堂
63	작자 미상	20C 초엽	平生圖 2	110.2×51.5	지본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婚姻式
64	작자 미상	18C 후반	城市圖 1	113.6×49.1	건본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1폭
65	작자 미상	18C 후반	城市圖 2	113.6×49.1	건본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5폭
66	작자 미상	18C 후반	耕織圖 1	132.4×48.8	건본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3폭
67	작자 미상	-	耕織圖 2	135.5×49.4	건본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68	작자 미상	19C	冊架圖	-	-	-	
69	작자 미상	1690	權大蓮啻老契會圖	199×485	비단 채색	서울대학교박물관	8폭 병풍
70	김홍도	-	東山雅襟	98.2×48.5	-	간송미술관	
71	작자 미상	-	경직도	132.4×48.4	건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72	작자 미상	-	낙화사군자화조도	29.0×97.5	지본	경기대학교박물관	10폭병풍
73	김홍도	1801	三公不換圖	133.7×418.4	건본 수묵담채	호암미술관 소장	
74	작자 미상	1723	홍국사 십육나한도	161×216.5	삼베에 채색	전남 여수 홍국사	제 2·4·6존자도
75	작자 미상	1550	도갑사 관세음보살삼십이응탱	235×135	비단 채색	일본 지은원	도면 右下
76	작자 미상	-	도갑사 관세음보살삼십이응신	-	-	전남 영암 도갑사	10. 소왕신도
77	작자 미상	1725	송광사 팔상도	125×118.5	비단 채색	전남 순천 송광사	비담강생상

의 도엽이 4엽(5.2%) 등으로 그 뒤를 따랐다. 그밖에 정선, 이방운과 이재관의 작품도 각각 3점씩(3.9%) 분류되었다. 단원, 혜원 그리고 오원 등 삼원으로 불리운 조선 후기 대표적 화가 모두 파초를 담은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파초가 등장하는 도엽은 불화와 작자미상(1604)의 선묘조제재경수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겸재 정선(1678~1759) 활동 시기 이후의 작품으로 대부분 17·18세기 그려진 도엽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도시공간과는 달리 사찰 경내에는 지금도 파초가 식재되어 있음을 비교 논증하기 위해서 사찰내 식재현황을 파악한 연구논문(강신갑, 1984; 김남철과 홍광표, 1993; 1995; 이성규와 심상렬, 1997; 하재호 등, 1997, 허상현, 2004; 유주한 등, 2010) 및 인터넷 검색을 시도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초의 꽃말 등 상징성과 시문 속에 나타난 파초의 내면적 의미를 파악한다. 둘째, 파초가 빈번히 등장하는 그림의 유형과 도상적 의미를 고찰한다. 셋째, 옛 그림 속 파초의 정원내 식재장소와 식재방법 그리고 동반요소를 분석한다. 넷째, 식재공간내 정원 주체 및 객체의 행위를 파악한다. 다섯째,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조선시대 정원문화와 관련된 파초 식재의 함의를 추찰(推察)한다.

파초가 등장하는 옛 그림의 유형을 산수화 및 정원풍속도(A), 화훼초충도 등 민화(B), 고사인물도 및 계획·아회도²⁾(C), 불화(D)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중국에서는 고사인물도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조선의 문화적 풍속과 산수경관에 맞춰 각색된 도엽은 A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파초의 식재 위치는 내원의 전정, 측정, 후정과 울타리 밖의 외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건물 내 위치는 파초

가 심겨진 공간과 가장 인접한 가옥을 중심으로 좌·우·중앙으로 구분하였다. 식재형식은 단식, 대식, 모아심기, 군식 그리고 산식(散植) 및 분식(盆植)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동반 등장물은 시설물, 수목 그리고 인물로 나누었다. 이 때, 시설물은 가옥형태(초가, 기와, 판자 등), 괴석, 울타리, 돌담 그리고 지당 등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으며, 식물 구분은 비교적 식별이 비교적 용이한 파초를 비롯하여 소나무, 벽오동, 대나무류, 종려 그리고 버드나무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또한 파초가 식재된 공간 영역 내 인물의 행위는 주체(주인)와 객체(손님 또는 종)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행위 분류는 크게 선비활동, 생활활동, 농경활동 그리고 기타활동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파초 식재 공간 영역 내 등장하는 인물의 수를 파악하였으며, 이 때 10인 이상은 '다수'로 표기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도엽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빈도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III. 이론적 고찰

1. 파초의 문화 상징성

1) 파초의 의미 정체성

파초(芭蕉: *Musa basjoo*)는 노지에서도 잘 자라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원산의 다년생 관엽식물로 열매 결실 이전 모습은 바나나(*Musa paradisiaca*)와 흡사하다. 바나나 또한 생강목 파초과(Musaceae)로 분류되는데, 파초를 일본 바나나(Japanese Banana, バショウ)라고도 한다. 뿌리는 굵은 덩어리 모양으로 줄기 높이는 4~5m, 잎은 길고 둥글며 길이는 2m 가량으로 자란다. 여름에 황백색 꽃이 이삭 모양으로 피는데 민간에서 잎, 잎자루, 뿌리 등을 해열·진통제로 쓰며, 꽃말은 탈속(脫俗) 또는 기다림, 미인을 지칭한다. 파초는 잎이 넓고 선인(仙人)의

표 2. 파초의 꽃말과 상징성

파초의 상징성		의미 및 상징성		비고	
		관련어	해석		
국내	民家	기다림	-	남극에서 온 관상 화초	꽃말
		美人	-	-	
		富貴	높은 벼슬	풍성한 일과 재발생하는 새순	이상희(1998)
		仙人의 풍취	-	-	
		起死回生	長久와 起死回生の 상징	지상부가 모두 사멸했다가 후년 새롭게 재생하는 신비	
	八寶의 하나	-	-	도교	
	佛家	脫俗	-	덧없는 인간 삶	꽃말
	믿음의 求法	慧可斷臂圖	-	오세영(2006)	
중국	友情	芭蕉果實長在同一根圓莖上, 一挂一挂地緊挨在一起, 所以, 有的民族將芭蕉看作團結、友誼的象徵。	파초의 열매가 다뭉쳐 단결됨		
	起死回生	芭蕉冬死又夏生, 一年一枯榮, 苗族把它看成起死回生的象徵。	해마다 한 번씩 싱싱했다간 다시 시들곤함		
	離別	芭蕉, 常常與孤獨憂愁特別是離情別緒相聯系。	고독하고 우울하여 특히 이별의 마음을 표상함		

풍취가 있으며, 특히 겨울에는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듬해 봄 새순이 다시 나오고, 불에 탄 뒤에도 속심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 나온다 하여 기사회생(起死回生)의 표상(表象)으로 여겨졌으며, 넓고 큰 잎사귀 때문에 부귀(富貴)를 상징하기도 했다(<http://cultureedic.daum.net>).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파초를 뜻하는 ‘초(蕉)’가 실려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내에는 1200년경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http://ko.wikipedia.org>). 국내에서 일반적인 파초의 이미지는 본래 고향을 떠난 식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상을 담고 있으며, 옛 선비들이 파초를 아껴 가꾼 것은 끊임없이 새 잎을 밀고 올라오는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정신을 높이 산 까닭이다. 표 2는 파초의 꽃말과 국내외 파초의 상징성을 고찰 정리한 결과이다. 국내 민가에서의 파초가 갖는 꽃말로는 기다림과 미인을 의미한다. 민가에서의 일반적 상징성은 부귀, 선인의 풍취, 기사회생 등을 의미하는 반면 불가에서는 꽃말로 탈속(脫俗)을 상징하며, 혜가단비도(慧可斷臂圖)³⁾에서 유래된 믿음의 구법(求法)의 상징체로 각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민가에서는 ‘파초 열매’와 ‘다년초로서의 속성’ 등에서 오는 우정을 상징하기도 하며, 장구 또는 기사회생 그리고 별리(離別) 등을 상징하는 식물로 인식되고 있는데, 특히 별리 및 기다림 그리고 기사회생의 의미는 국내에서도 동일한 상징의미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회화와 문학적 상징성으로 본 파초

국내의 산수풍속화는 물론 중국의 산수풍속화에도 파초는 자주 등장한다. 중국 강남인들이 그림의 소재로 파초를 즐겨 삼은 것은 아열대 풍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넓은 파초 잎은 식기(食器)의 원자재로 쓰일 수 있어 아주 긴요했다. 또한 파초는 오래전부터 글을 쓸 수 있는 종이로서의 역할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의 승려 회소(懷素, 725~785)는 초서(草書)에 능했는데, 암자에 파초를 수천 포기 심어 놓고, 잎을 종이 삼아 글씨를 연습하여 뛰어난 서예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암자명을 녹천암(綠天庵)이라 짓고, 파초에 문혀 지냈으며(최중세, 2006; 장연역, 2007), 이러한 일화는 중국 화단의 주요 화제(畫題)로 자리잡았다. 그림 1a의 종초학서도(種草學書圖)와 그림 1b 및 1c에서와 같이 ‘파초 잎 글쓰기’와 ‘파초가 울창한 거처 녹천암’의 고사는 명·청대에도 일정한 도상(圖像)으로 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나라 두근(杜堇: 1368~1644)의 작품인 완고도(玩古圖)⁴⁾에는 다양한 등장인물과 탁자 및 가구 등과 함께 괴석과 수목 그리고 파초가 등장하는데 골동품을 감상하는 것 외에 거문고(琴), 바둑(棋), 서화(書畫)를 소재로 문인의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도상은 중국은 물론 조선시대에도 아취 있고 우아한 모임을 주제로 하는 계획도 및 아회도의 중요한 미학적 모티브로 작용해 왔다. 이렇듯 고상한 모임을 표현한 그림 속 경물로 등장하는 파초는 다구(茶具) 등과 함께 품위 있는 문사들의 풍류

행위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화가들이 파초에 끌리는 또 다른 이유는 매력적이고 시원스런 잎이다. 신령스러우면서 여유로운 파초의 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초연하면서도 바람에 가볍게 날리는 파초의 잎은 신선의 풍모를 지닌 것으로 여겨 ‘선선(扇仙)’이라 불렀다(<http://happylog.naver.com/forest>).

파초의 이미지는 중국 송 대로 접어들면서 성리학적 심성론을 배경으로 전변(轉變)되었으며, 그 대표적 예가 아래와 같은 장재(張載: 1020~1077)의 시 「파초」이다.

芭蕉心盡展新枝, 新卷新心暗已隨 파초의 심이 다해 새 가지들 펼치니, 새로 말린 새 심이 어느새 뒤따른다.
願學新心養新德, 旋隨新葉起新知 새 심으로 새 덕 기름 배우길 원하노니, 문득 새 잎 따라서 새 지식이 생겨나리.

장재는 잎 하나가 말리면 다른 잎이 곧바로 새롭게 퍼지는 파초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끊임없이 새 잎을 밀어 올리는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정신을 담은 수양론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같은 사유는 파초 잎이 퍼져 옆으로 누우면 가운데 심지에서 어느새 새 잎이 밀고 나오는 생장 습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선비들이 성리학적 가르침을 얻기 위한 부단한 학문 연마와 정진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http://soohyun.compuz.com/>).

이렇듯 장재의 ‘파초’에 나타난 이미지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내에서 성리학적 가치관을 파초에 투영하는 시각은 송학(宋學)을 숭상한 학문적 풍토와 맞물려 있다. 조익(趙翼: 1579~1655)의 영파초(詠芭蕉) 「파초를 읊다」와 송시열(1607~1689)의 「소강절」



a: 種草學書圖 (淸末, 倪田) b: 綠天庵圖 (明代 董其昌) c: 綠天草齋論茗圖 (清代 項文彥)

그림 1. 중국의 서화에 등장하는 ‘회소스님’과 ‘녹천암’
자료: <http://blog.naver.com/>

의 「수미음에 차운하다(次康節「首尾吟」韻)의 98번째 작품과 어유봉(1672~1744)의 「파초를 읊다(詠芭蕉) 등은 파초가 자아내는 탈속적 정취를 강조함으로써 후에 ‘한정의 미학’과 관련하여 완상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그리고 이국적인 멋뿐만 아니라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다른 식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청각적 즐거움을 주었던 것도 파초 애호의 한 이유였다(이선, 2006). 파초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의 정취는 중국의 경우 이미 송대 이전부터 감상되어 왔는데, 강남 소주의 대표적 사가원림인 줄정원 내 주요 건물명이 청우헌(聽雨軒) 즉 ‘파초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집’이었음은 파초를 통한 청각적 이미지와 우경(雨景)에 대한 선호를 잘 반영하고 있다(문화재관리국, 1989). 조선시대 안평대군의 비해당사십팔영의 ‘창밖의 파초(窓外芭蕉)’나 목판본 소쇄원도에 나타난 파초와 김인후의 소쇄원사십팔영 중 제43경인 ‘적우파초(滴雨芭蕉)’는 생활공간 주변에 담겨진 선비문화의 단상과 파초 사랑의 문화현상을 잘 투영하고 있다. 또한 우초여(雨蕉研)라는 벼루에 대한 애호로 이어지는 파초에 대한 서유구의 취향은 「우초당 기문」에서도 연결되는데, 이 기문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 도시적 감각, 심미적 태도가 결합되어 형성된 원예식물 파초에 관한 감수성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김대중, 2006).

이렇듯 중국 강남의 사대부들의 도시적 성장과 물질적 번영을 토대로 한 원림문화를 통해 파초는 정원 내 시문의 격조를 체험하도록 선택되고 배치되었음은 자명하다. 국내에서도 파초가 적극 도입되고 문인화숙 시문의 아취(雅趣)가 교유하던 시기 원림 내 파초 식재의 의미는 서화와 골동품을 감상할 때와 유사한 심미적 태도가 수반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론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정민(2007)의 견해와 같이 결국 원물상지로 금기시되던 화훼에 대한 애호 취미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히 성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8·19세기 도시문화의 활성화가 가져온 특이한 문화현상이었다. 조선 초기 안평대군과 강희안을 비롯한, 원당 김정희에 이르기까지 파초 관련 대표적 저술을 살펴볼 때, 파초의 상징성과 재배방법, 품격과 이미지, 빗소리에 담긴 한정의 미학, 식재법 등 조선시대 선비계층들의 파초 사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은 매우 다채로워 보인다.

한편, 실용적인 측면에서 조선 후기 파초 재배법에 대한 관심은 홍만선(1664~1715)의 ‘산림경제’에 소개되었으며, 강희맹의 「파초 기르기 노래」의 일부를 비중 있게 인용하고 있다. 또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까지 그대로 심화 수용되고 있다. 파초는 온화한 기온이 가장 중요한 생육 조건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산림경제’에서는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차가운 습기로, 이를 썩면 상하기 일쑤다. …(중략)… 겨울에는 줄기를 한 자쯤 남겨 두고 베어 버린 후, 뿌리를 캐어 움[土宇]속에 갈무리하라.”라고 당부했다. 파초는 아열대 식물로 겨울을 얼지 않고 나려면 월동 대책이 꼭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 사찰의 파초 식재 관행

현재 도시 내 민가에서 파초 식재의 현장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찰 및 암자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만날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문 및 웹사이트 검색 결과, 국내 삼보 사찰을 비롯한 대부분 유명 사찰의 대웅전이나 극락전 전면에는 파초가 군식(群植)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찰 경내에 심겨진 파초의 상징성은 무엇일까? 푸른 잎사귀를 밖으로 넓게 드리우고 한껏 멋을 자랑하지만, 안으로는 속살 한 점 감추지 않은 청정함으로 심재(心材)가 없는 까닭에 본질을 꿰뚫어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어 무아(無我) 또는 공(空)의 의미(<http://cafe.naver.com/teastory>)를 표상하기도 한다. 이밖에 크게 자라지만 이내 사그라지고 마는 파초를 통해 인간사의 무상함을 환기시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혜가단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의 구법을 염원하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지금도 사찰 경역 내 파초는 지속적인 군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된다.

표 3. 국내 사찰의 파초 식재 현황

구분	사찰명	식재공간	식재 패턴	출처
문헌 검색	선암사(순천)	대웅전(前)	군식	이성규와 심상렬, 1996
	대흥사(해남)	대웅전(前)	군식	姜信甲, 1984
	백양사(장성)	대웅전	군식	
	선암사(순천)	대웅전	군식	
	송광사(순천)	대웅전(前)	군식	
	화엄사(구례)	대웅전(前) 각황전	군식	
	통도사(양산)	약사전, 영신전	군식	
인터넷 검색	금탑사(고흥, 천등산)	극락전(前)	군식	
	무량사(부여, 만수산)	극락전(前)	군식	http://blog.naver.com/biosig
	남장사(상주, 노악산)	보광전(前)	군식	http://100.naver.com/100.nh
	선암사(순천, 조계산)	조사당(前)	단식	http://www.sunamsa.or.kr/
	쌍계사(하동, 지리산)	팔상전(前)	군식	http://100.naver.com/100.nhn
	은혜사(영천, 팔공산)	보화루 주변	군식	http://blog.naver.com/bucidol
	직지사(김천, 황악산)	응진전(前)	군식	http://blog.naver.com/freebo
	통도사(양산, 영축산)	극락전(前, 側)	군식	http://slowalker.net/
	해인사(합천, 가야산)	대적광전(前)	단식	http://blog.naver.com/noelevel
	화엄사(구례, 지리산)	각황전, 영전(前)	단식	http://cafe.naver.com/jhhistory/

IV. 결과 및 고찰

1. 파초 등장 그림의 유형

표 4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파초가 등장하는 옛 그림의 유형을 개관하면 산수화 및 정원풍속도(A) 39엽(50.6%), 화훼초충도 등 민화(B) 24엽(31.2%), 고사인물도 및 계획·아회도(C) 9엽(11.7%), 불화(D) 5엽(6.5%) 등으로 분류되었듯이, 산수화와 풍속도 등이 전체 그림의 절반을 상회하였다. 정원풍속화 중에는 평생도⁵⁾와 경직도 그리고 성시도⁶⁾ 등과 같이 전형적 도상에 준거한 그림이 많으며, 계획도는 서원아집도를 비롯하여 난정계획도⁷⁾, 당십팔학사도 등과 같은 고사인물도의 성격을 갖는 그림에서 주로 발견된다. 특히 당십팔학사도에서는 문인들의 풍류 행위 중 거문고타기, 바둑 두기, 글씨쓰기, 그림그리기를 ‘금기서화(琴棋書畫)’라는 단어로 명명하고, 이들 인물의 행위가 벽오동, 대나무류, 소나무, 버드나무와 함께 괴석과 파초 등이 함께 등장하는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송희경, 2008). 1087년 북송 때 형성된 서원아집도 또한 앞서 중국의 완고도에서 살핀 바 있듯이, 민간에서는 학사 등 선비계층의 고상하고 우아한 예술적 취향과 문예활동을 표현하기 위한 소도구로서 파초가 등장하고 있다. 이 때 파초는 부귀와 고아한 선인의 세계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원아집도’는 대개 1087년(宋, 철종 2년, 고려 의종 4년) 북송의 부마도위 왕선(王詵)이 자신의 별서정원 ‘서원(西園)’에서 소식(蘇軾: 소동파), 미불(米芾: 미원장), 이공린(李公麟: 이백시)을 비롯한 당시의 유명한 시인과 묵객 16명이 모여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담론하는 아회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아회 참가자 16명은 대략 4개의 풍류활동을 담은 주제 영역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서원의 운치 있는 그림’이란 이름을 붙인 뒤 널리 회자되며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사인물도의 소재로 유행하였다(송희경, 2008). 특히 미불의 ‘서원아집도기’는 그 내용을 파악하는 기준자료로 가장 중요하게 임혀져 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원아집도 등의 계획도에는 전형적으로 파초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때의 파초는 소나무나 벽오동 또는 종려 등과 함께 고상함과 아취를 높이는 상징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회도 및 계획도 이외에 파초가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주제도의 유형은 성시도와 평생도 그리고 경직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그림에 등장하는 파초는 주로 화려함과 풍요로움 즉 번영을 표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파초의 상징 의미인 부귀와 건밀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훼초충도 및 민화 등으로 분류된 24엽의 그림은 주로 실내의 파초 모습을 담은 그림들로서, 기다림이나 부귀 그리고 선인의 풍취를 반영하기 위한 상징적 대용물이자 소

품으로서 파악된다. 그리고 이재관의 파초엽제시도(芭蕉葉題詩圖: 도엽번호 41)나 파초하선인도(芭蕉下仙人圖: 도엽번호 42) 등의 도상은 녹천암취승서초도(綠天庵醉僧書蕉圖) 등과 같은 ‘회소서초(懷素書蕉)’와 관련된 그림으로 보인다.

2. 파초 식재 양상

조선시대 수목배식에 관해서는 홍만선의 산림경제와 서유구의 임원십육지 등을 참고할 수 있는데⁸⁾ 전통조경공간에서는 주종별 식재공간과 배식유형에 따라 ‘마땅할 의(宜)’와 ‘꺼려할 기(忌)’로 나누고, 식재를 권장하거나 금기시하기도 하였다. 식재시에는 풍수지리사상, 음양오행사상, 유가사상, 민간신앙 등의 사상과 식물의 생태적 특성, 입지환경 등에 대한 관찰을 통한 배려가 함께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옛 그림에 나타난 파초의 식재 양상과 등장물의 조사 결과를 표 4와 5에 종합하였다. 전체 그림 중 가옥이 표현됨으로써 표현 대상공간이 정원의 마당임을 보여주는 도엽은 40매로 62.5%에 해당되었다. 나머지 37.5%는 초충도 등의 민화나 불화 등으로 가옥이 등장하지 않거나 실내공간에 파초임을 일부 묘사하고 있다. 파초의 식재장소로는 전정 18엽(41.0%), 측정 15엽(34.9%), 후정 6엽(13.9%) 등으로 나타나, 파초가 주로 가옥 인근 전정과 측정에 주로 심겨진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후정에 식재된 빈도는 낮았다. 이는 후원에 파초를 심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알려진 속설(이상희, 1998)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주로 사랑채 안 마당으로의 쓰임새를 가진 전정과 측정이 파초 식재의 주대상공간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물 내 파초 식재 위치는 건물 내부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이 21엽(48.8%)로 왼쪽 14매(3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파초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의 청음(聽音)이 용이한 가옥의 주 거처인 침실의 위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식재 패턴은 단식(單植)이 66엽(91.6%)로 압도적이었다. 그밖에 분식(盆植) 3매(4.2%), 산식(散植)과 열식(列植) 각 1엽(1.4%)로 나타났으며, 중국에서와 같이 군식(群植)으로 표현된 도엽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가에 파초를 오랫동안 많이 심으면 재앙을 자초하는 빌미가 되며 부인이 혈증(血症)을 얻는다”는 믿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상징적 의미의 파초 식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동반 등장물

파초와 함께 그려진 동반 등장물 분석 결과, 흥미로운 것은 괴석이 파초와 같이 등장하는 도엽 수가 40엽(51.9%)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괴석과 유사한 표현의 암석이 등장하는 도엽 또한 12엽(15.6%)으로 괴석 또는 암석과 함께 파초가 그려진 도엽은 도합 52엽(67.5%)에 이르고 있다. 송희경(2008)은 “17·18세기 한양의 경화사족들은 서재 주변에 불



그림 2. 옛 그림에 나타난 정원 속의 파초

로장생을 상징하는 학, 괴석, 파초, 대나무류, 소나무 등을 배치 하였는데, 이때 괴석은 우주의 축소판으로 간주하여 명상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괴석과 파초의 배합은 일종의 도상적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의경(意景)을 구축하는 주요 아이콘이 결합된 산물로도 파악된다.

조선시대는 도가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현실세계 가까이 자연을 재현하고자 하는 산수화와 정원에 배치된 괴석은 집 밖을 떠나지 않고 방 안에서 자연을 유람할 수 있는 와유(臥遊)의 개념(강신술, 1990; 이종묵, 1998; 김미영, 1999; 전영옥, 2004)이라면 파초와 괴석의 배치는 고상하고 우아한 외래식물의 아취를 집안에서 품위 있게 향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밖에 울타리 20엽(26.0%), 돌담 10엽(13.0%) 등으로 나타남으로서 전정 및 측정을 중심으로 일정한 영역성이 확보된 공간에 파초가 식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옥의 형태는 초가 19엽(24.7%), 기와 23엽(29.9%)으로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동반 식물로는 소나무 31엽(40.2%), 벽오동 19엽(27.2%), 대나무류 15엽(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벽오동 및 오동나무는 파초와 같이 부딪히는 빗소리를 청음할 목적으로도 심어진 식물임을 볼 때, 파

초잎을 때리는 빗소리를 우경관(雨景觀)으로 적극 활용하고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나무나 대나무류 등은 동양화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식물 소재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한편, 등장 동물로는 학이 11엽(14.3%), 시슴이 7엽(9.1%)로 나타났다. 이는 서원아집도 등 아회도의 일반적인 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학은 십장생의 하나로서 선학(仙鶴)의 의미와 승화·초월·장수를 상징하며, 한편으로는 고고함과 청비함을 상징하는 선비의 상징이자 길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김중대, 2001). 시슴 또한 십장생의 하나로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소중히 생각한다’는 상징성이 내포된 동물이기도 하다(리영순, 2006).

4. 등장인물의 행위

등장인물의 행위유형을 분석 결과, 주연의 행위는 풍류 등 선비활동(45엽: 58.4%)과 가장 관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활동(3엽: 3.9%), 기타활동(3엽: 3.9%), 농경활동(2엽: 2.6%)이 나타났다. 그리고 조연의 행위로는 생산활동 11엽(14.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 그림 속 파초의 식재위치 및 동반 등장물 분석

No.	도업명	구분	식재장소			동반 등장물														
			정원 위치	건물 위치	식재 패턴	시설물					식물				동물	인물				
						가옥 형태	怪石	울타리	돌담	池塘	소나무	(백) 오동	대나무류	종려		버드나무류	행위 ^{*1}	수		
																			主	客(從)
1	仁谷幽居	A	전정	중앙	단식	기와	-	●	-	-	-	●	-	-	●	-	a1	-	1	
2	척재제시	A	전정	좌	단식	기와	-	-	-	-	-	-	-	-	-	-	a3	c13	2	
3	횡가자경	B	-	-	대식	-	●	-	-	-	-	-	-	-	-	-	a3	-	1	
4	독서하는 여인	B	-	-	단식	-	-	●	-	-	-	-	-	-	-	새	a20	-	1	
5	산수도	A	후정	우	단식	기와	●	-	-	-	●	-	-	-	-	학	-	-	-	
6	田家樂事	A	전정	우	단식	초가	岩	●	-	계류	-	-	●	-	-	소, 개	c28	-	다수	
7	傲沈石田山水圖	A	측정	우	단식	초가	●	-	-	-	-	●	-	-	-	-	a1	-	1	
8	芭蕉圖	A	측	좌	단식	초가	●	-	-	-	-	-	-	-	-	-	-	-	-	
9	芭蕉草蟲	B	-	-	단식	-	●	-	-	-	-	-	-	-	-	잠자리	-	-	-	
10	敗蕉秋貓	B	-	-	단식	-	●	-	-	-	-	-	-	-	-	고양이, 등	-	-	-	
11	파초와 잠자리	B	-	-	-	-	●	-	-	-	-	-	-	-	-	잠자리	-	-	-	
12	방십석전산수도	A	-	우	단식	초가	●	-	-	계류	-	●	-	-	-	-	-	-	-	
13	雅集圖	C	-	-	단식	-	-	-	-	-	-	-	-	-	-	-	a12	c11	다수	
14	碧梧清篲圖	A	후정	중앙	단식	초가	岩	●	-	-	-	●	●	-	-	-	a1	a2	2	
15	檀園圖	A	전정	대문 옆	단식	초가	●	-	●	●	●	●	-	●	●	학	a9	-	4	
16	담와 홍계희平生圖	A	측정	좌	단식	기와	●	-	-	-	●	●	-	-	-	학, 말	-	b8	1	
17	西園雅集圖 6곡병	C	-	-	단식	-	●	-	-	계류	●	●	●	●	-	학, 시슴	a12	-	다수	
18	西園雅集圖 3	C	측후	좌	단식	초가	●	-	-	-	●	●	-	-	-	-	a12	-	다수	
19	西園雅集圖 4	C	-	좌우	散植	-	-	-	-	-	●	-	-	-	-	-	a12	-	-	
20	扇面 西園雅集圖	C	전정	중앙	단식	-	●	-	-	계류	●	-	●	●	-	-	a12	-	다수	
21	月下青松圖	A	전정	우	단식	초가	●	●	-	-	●	-	●	-	-	-	a6	-	1	
22	月下吹笙	B	-	-	-	-	-	-	-	-	-	-	-	-	-	파초방석	-	a9	-	1
23	전한화도	A	전정	-	단식	-	●	●	-	-	-	-	-	-	●	-	학	a10	c11	3
24	萬古青山圖	A	측정	좌	단식	기와	●	-	-	-	●	-	-	-	-	학	a1	-	1	
25	生朝去觴圖	A	측정	우	단식	초가	●	-	●	-	-	-	-	-	●	-	a12	-	4	
26	焦園試茗圖	B	-	-	단식	-	-	-	-	-	-	-	-	-	-	시슴	c11	-	1	
27	殷保感烏本朝	A	측정	좌	단식	기와	●	-	●	-	●	-	-	-	-	-	a10	-	2	
28	布衣風流圖	B	-	-	-	-	-	-	-	-	-	-	-	-	-	파초 잎	-	a9	-	1
29	화궐도	B	-	-	-	-	-	-	-	-	-	-	-	●	-	-	-	-	-	-
30	常山閑談圖	B	-	-	단식	-	●	●	-	-	-	-	-	-	-	-	a1	a7,c13	4	
31	出門看月圖	A	외원	-	列植	판자	-	●	-	-	-	●	-	-	-	개	a5	-	1	
32	西園雅集圖	C	-	-	-	-	-	-	-	-	-	-	-	-	-	-	-	-	-	-
33	사행기록화	C	-	-	-	-	●	-	-	-	-	-	-	-	-	말	a1	c11,d29	4	
34	정조대왕필 芭蕉圖	B	-	-	단식	-	●	-	-	-	-	-	-	-	-	-	-	-	-	-
35	오동나무아래에서	B	-	-	단식	-	-	●	-	-	-	●	●	-	-	-	a10	-	3	
36	芭蕉高士圖	B	-	-	단식	-	岩	●	-	-	-	-	●	-	-	-	a3	c11	3	
37	夏景山水圖	A	측정	좌	단식	초가	●	●	-	-	-	●	●	-	-	여치, 배짱이	a1	d31	3	
38	夏日酒宴圖	A	전정	우	단식	기와	●	●	-	-	●	-	●	-	-	-	a22	d31	4	
39	觀音三十二應身圖	D	측정	우	단식	기와	岩	-	-	-	●	-	-	-	-	-	a6	d26	3	
40	午睡圖	A	후정	중앙	단식	-	岩	-	-	-	●	-	-	-	-	학	a23	c11	2	

표 4. 계속

No.	도엽명	구분	식재장소		식재 패턴	동반 등장물											인물			
			정원 위치	건물 위치		시설물					식물					동물	행위 ¹⁾			
						가옥 형태	怪石	울타리	돌담	池塘	소나무	(벽) 오동	대나무류	종려	버드나무류		주	客(從)	수	
41	芭蕉葉題詩圖	B	-	-	단식	-	岩	-	-	-	-	-	-	-	-	-	-	a4	a24	2
42	芭蕉下仙人圖	B	-	-	단식	-	岩	-	-	-	-	-	-	-	-	-	-	a4	a24	2
43	산차아차도	A	측정	좌	단식	초가	-	●	●	-	-	-	-	-	-	-	-	a20	a20	2
44	茶山草堂圖	A	후정	-	단식	초가	●	-	●	●	●	-	-	-	●	-	-	-	-	-
45	산수영모도	A	-	-	단식	기와	岩	-	-	-	●	-	-	-	-	학	a23	c11	2	
46	蕉園芝鹿	B	-	-	단식	-	岩	-	-	-	산삼, 모란					시슴	-	-	-	
47	芭蕉神仙圖	B	-	-	단식	-	岩	-	-	-	-	-	-	-	-	-	a4	d31	2	
48	芭蕉遊猫圖	B	-	-	단식	-	-	-	-	-	-	-	-	-	-	고양이	-	-	-	
49	오폭병풍도(가칭)	B	-	-	단식	-	岩	-	-	-	-	-	-	-	-	시슴	-	-	-	
50	화초병풍(가칭)	B	-	-	단식	-	-	-	-	-	국화					-	-	-	-	
51	高山九曲潭總圖	A	후정	우	단식	초가	●	●	-	-	●	●	-	-	-	-	a1	c7	3	
52	芭蕉圖	B	-	-	단식	-	●	-	-	-	-	-	-	-	-	-	-	-	-	
53	농촌생활도	A	측정	우	단식	기와	岩	-	-	-	-	●	-	-	-	학	a9	-	4	
54	林深屋樓圖	A	외원	-	단식	초가	-	●	-	계류	-	-	-	-	-	-	-	-	-	
55	芭蕉夜雨圖	A	측정	우	단식	-	山峰	-	-	계류	●	-	-	-	-	-	-	-	-	
56	蘭亭契會圖	C	전정	좌	단식	기와	●	-	-	●	●	-	●	●	●	-	a12	-	다수	
57	宣廟朝諸宰慶壽宴圖	A	외원	우	단식	초옥	●	-	●	-	●	-	-	-	●	-	d26	-	다수	
58	玉壺亭圖	A	전정	좌우	단식	기와	●	●	●	●	●	-	-	-	●	-	-	-	-	
59	木版本 瀟灑園圖	A	전정	우	단식	기와 초가	●	-	●	●	●	●	●	-	-	물고기	a15	-	2	
60	芭蕉	B	-	-	단식	-	●	-	-	-	-	-	-	-	-	곤충	-	-	-	
61	학림산거	A	측정	우	단식	기와	●	●	-	-	●	-	●	-	●	-	c25	a2, c7	4	
62	平生圖 1	A	전정	중앙	분식	기와	분식	-	-	-	-	●	-	-	-	학	a27	-	6	
63	平生圖 2	A	전정	중앙	분식	기와	●	-	●	-	●	-	●	-	-	-	d26	-	다수	
64	城市圖 1	A	중정	우	단식	기와	-	-	-	-	-	-	-	-	-	-	d31	-	다수	
65	城市圖 2	A	전정	중앙	단식	기와	-	-	-	●	-	-	-	-	-	소	b19	-	다수	
66	耕織圖 1	A	측정	좌	단식	초가	●	●	-	계류	●	-	-	-	-	-	a10	b16	4	
67	耕織圖 2	A	후정	우	단식	초가	●	-	●	-	●	-	-	-	-	-	b19	b21	다수	
68	冊架圖	B	-	-	분식	-	-	-	-	-	-	-	-	-	-	새	-	-	-	
69	權大蓮嚙老契會圖	C	전정	우	단식	기와	●	●	-	-	●	●	-	-	●	시슴, 말	a12	a12	다수	
70	東山雅饗	A	전정	중앙	단식	기와	●	●	-	-	●	●	●	●	-	시슴	a12	c25	2	
71	경직도	A	측정	좌	단식	초가	●	-	-	계류	●	●	-	-	-	-	a1	b17	4	
72	낙화사군자화조도	B	-	-	단식	-	-	-	-	-	-	-	-	-	-	새	-	-	-	
73	三公不換圖	A	측정	우	단식	기와	●	-	-	●	●	●	●	-	●	학, 닭, 말, 시슴	-	-	-	
74	홍국사십육나한도	D	-	-	단식	기와	●	-	-	-	-	-	-	-	●	원숭이	a1	-	4	
75	도감사관세음보살이응탱	D	전정	우	단식	기와	-	-	-	-	●	-	-	-	-	-	a1	-	다수	
76	도감사관세음보살이응신	D	-	-	단식	-	-	-	-	-	-	-	-	-	-	-	a1	-	다수	
77	바람강생상	D	전정	좌	단식	기와	-	-	-	-	●	-	-	-	-	-	-	-	다수	

<도엽유형> A: 산수화 및 정원풍속도, B: 화훼조종도 등 민화, C: 고사인물도 및 계획·야회도(C), D: 불화
 <행위법례> 1: 靜坐, 2: 淸掃, 3: 글쓰기, 4: 파초 앞에 글쓰기, 5: 달구경, 6: 책상에 앉아있기, 7: 방문하기, 8: 말(털)고르기, 9: 악기연주, 10: 閑談, 11: 차
 물 끓이기, 12: 契會, 13: 주인께 아뢰기, 14: 遊樂, 15: 바둑 두기, 16: 막 따기, 17. 물 길기, 18: 농경생활 관조, 19: 농사일 거들기, 20: 讀書, 21. 修理, 22: 飲
 酒, 23: 낮잠 자기, 24: 먹 갈기, 25: 관람, 26: 잔치(宴會), 27: 글공부, 28: 베를 짜기, 29: 시너, 30: 말 끌기, 31: 구분 안 됨
 선비활동(a) 농경활동(b) 생활활동(c) 기타(d)

표 5. 그림 속 구도와 형태 및 등장물 분석

구분		도엽수(%)		
가옥등장 유무	유	43(55.8)		
	무	34(44.2)		
식재 장소	정원 내 위치	외원	3(6.9)	
		내원	전경	18(41.0)
			중정	1(2.4)
			후정	6(13.9)
			측정	15(34.9)
	건물 내 위치	좌	14(32.5)	
	우	21(48.8)		
	중앙	8(18.7)		
식재 패턴	單植	66(91.6)		
	對植	1(1.4)		
	群植	0(0)		
	散植	1(1.4)		
	盆植	3(4.2)		
	기타(列植)	1(1.4)		
시설물	괴석	40(51.9)		
	岩	12(15.6)		
	울타리	20(26.0)		
	돌담	10(13.0)		
	지당	7(9.1)		
	계류	8(10.4)		
	가옥	초가	19(24.7)	
		기와	23(29.4)	
		판자	1(1.3)	
	식물	소나무	31(40.2)	
벽오동		19(27.2)		
대나무류		15(19.5)		
버드나무		7(9.1)		
종려		11(14.3)		
동물	포유류	사슴:7(9.1), 말:4(5.2), 소:2(6.5), 고양이:2(6.5), 개:2(6.5), 원숭이:1(1.3)		
	조류	학:11(14.3), 기타 새(3.9)		
	곤충	잠자리:2(6.5), 나비:1(1.3), 말뚝구리:1(1.3), 방아깨비:1(1.3), 여치:1(1.3)		
	어류	물고기:1(1.3)		
인물의 행위	主	a	45(58.4)	
		b	2(2.6)	
		c	3(3.9)	
		d	3(3.9)	
	客(從)	a	7(9.1)	
		b	4(5.2)	
		c	11(14.3)	
		d	5(6.5)	

동양의 예술정신은 사물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본질 탐구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자연 속에서 사물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이론 고찰 및 그림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조

선시대 특히 17·18세기의 원예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고, 이러한 현상은 이 시대 지식인층인 선비들의 문화의식을 특징짓는 한 현상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안대회(2004)가 지적한 바와 같이 18·19세기 의원기라는 문학으로 표출된 가상 주거공간과 당시 회화와의 밀접한 관련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의원도(意園圖), 낙지도(樂志圖), 아집도 등을 비롯한 사대부의 생활공간을 묘사한 그림 가운데는 실제의 정원이 아닌 의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월동관리를 위한 큰 노력이 요구되는 파초나 종려 등과 같은 외래식물이 폭넓게 애배(愛培)되었고, 그 흔적의 일부가 지금도 잔존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조선 후기 원림문화 특히 파초 등 외래식물 식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은 대부분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중인 이상의 지식인계층인 선비였을 것이다. 조선조 선비는 학문과 자연을 사랑하며 공맹(孔孟)의 도를 지키고자 하는 유가적인 이상적 지식인들로 인해 서울과 경기 지방에서 파초 식재와 완상은 부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소비문화의 주도자인 선비들도 결국 양반 체제의 붕괴와 19세기 퇴폐적인 소비유흥 그리고 이어진 조선 폐망과 함께 이 땅에서 퇴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이와 궤를 함께하여 파초 식재 또한 점차 쇠퇴된 것으로 보인다. 파초를 통해 부귀와 선계의 정취를 표현하고 파초 앞에 떨어지는 청아한 공명의 울림 통한 성찰과 우경적 이미지 그리고 끊임없이 새 잎을 밀고 올라오는 자강불식과 기사회생의 정신을 담은 수양론적 의미를 담고자 했던 파초 식재문화 또한 국내 도시공간에서는 서서히 퇴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V. 결론

파초의 꽃말 등 상징적 의미와 조선시대 시문 등에 등장한 파초 이미지와 식재의 의미를 개관하는 한편 총 77엽의 옛 그림 대상으로 그림 속의 파초의 식재 경향과 식재 위치 및 파초가 등장하는 도엽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조선 후기 파초 식재의 양상과 그 의미를 추찰할 목적으로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초는 기다림과 별리(別離), 미인 등의 꽃말뿐만 아니라 부귀와 기사회생(起死回生)을 상징하는 대용물이었으며, 도교적 의미로는 선인(仙人)의 풍취를 자아내는 대상이었다. 또한 불교적 언어로는 덧없는 인간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속(脫俗)의 상징물이기도 하였다.

둘째, 정원풍속도 및 고사인물도 또는 계획도에 등장하는 파초는 정원의 탈속적(脫俗的) 정취를 높이고 선비들의 아회(雅會)를 보다 품격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 바 학과 사슴이 높은 등장빈도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증한다.

셋째, 평생도, 성시도, 경직도 등의 일정한 도상 속 파초의

의미는 부귀와 번영을 염원한 것으로 보이며, 사찰에 심겨진 파초는 인간사의 무상함을 환기시키는 탈속적 의미와 함께 믿음의 구법을 염원하는 매개체로 보인다.

넷째, 파초 식재를 통한 기대 효과는 ‘비가 내릴 때 파초 잎을 울리는 소리경관’의 체험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파초와 함께 넓은 잎을 지닌 (벽)오동나무 또한 가옥 근처에 빈번히 심었던 정황으로도 확인된다.

다섯째, 파초 식재 패턴은 단식이 압도적이었으며 분식, 산식, 열식은 극히 미미하였으며, 중국에서와 같이 군식으로 식재되지 않음은 상징적 의미의 파초 식재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여섯째, 파초의 식재장소는 주로 사랑방을 중심의 전정이나 측정에 주로 심겨진 것으로 보이며, 우경관의 체험이 용이한 침실의 위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구에서 보았을 때 주로 오른쪽인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파초와 같이 등장하는 시설물 중에는 괴석 또는 암석의 등장률이 매우 높는데, 이는 일종의 동경적 대상에 대한 의경 구축의 일환이자 아이콘의 조합적 산물로 보인다.

여덟째, 옛 그림 속 등장인물은 주연의 경우, 풍류 등 선비활동과 관련이 높았으며, 조연의 주요 행위는 생활활동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홉째, 조선조 17·18세기 파초는 선비계층의 수양론적 의미와 우경적(雨景的) 이미지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새 잎을 밀고 올라오는 자강불식(自強不息)과 기사희생의 정신을 담은 파초 식재문화는 선비문화의 퇴조와 함께 우리나라 도시공간에서 그 궤적을 같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 1) 조선 순조 때의 대신·문인(1754~1825). 자는 洛瑞, 호는 薑山·楊齋. 벼슬은 史官을 거쳐 호조 판서, 대제학, 우의정에 이르렀다. 명문장가로 詩名이 높아 漢詩 四家의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저서에 문집 《강산집》, 《적재집》이 있다(<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526400>).

주 2) 현 미술사 학회 등에서는 안휘준(1988)과 정병모(2000) 등의 논의의 바탕으로 아회도를 계획도와 풍속화의 범주에 포함하여 문인계획도 혹은 사인풍속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 3) 달마대사는 스승이던 반야다라 존자의 열반을 마지막으로 인도 내의 교화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당시 梁나라의 왕이던 武帝를 만났으나 무제는 대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대사는 그 길로 洛陽의 崇山 少林寺에서 9년이란 긴 세월 동안 面壁하며 시절인연이 도래하길 기다렸다. 대사의 말없는 교화가 9년째 이던 어느 해 罽賓왕에 儒佛仙의 이치를 통달한 신광(神光)이라는 스님이 찾아와 법의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러나 대사는 면벽한 채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신광은 춥고 눈내리는 긴 겨울 밤을 인내로 지새웠다. 그러나 대사는 하룻밤의 얇팍한 덕으로 큰 지혜를 얻고자 하느냐며 꾸짖자 신광은 칼을 빼어 왼쪽 팔을 잘라 구도 결심의 척도를 보였다. 이에 땅에서 파초잎이 솟아나 팔을 받쳤고 대사는 신광의 입문을 허락하여 慧可라 하였다. 헤가는 달마 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중국 선종의 제2대 조사가 되었다. 헤가단 비도는 벽화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회화의 소재로 많이 그려지기도 하였는데, 어느 것이나 위의 내용을 사실적이고 인상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다(<http://cafe.daum.net/kilsangsunwoun>).

주 4) 두근은 본래 성이 陸씨로 훗날 성을 杜로 고쳤다. 丹徒, 오늘날 강소 鎮江사람으로 南京에서 살았다. 자는 懼南이고 호는 正樞居, 古狂이라 하였고, 스스로 靑霞亭이라고도 서명하기도 하였다. 成化 초, 진사시에 낙방한 후 시와 서화 창작에 전념하였다.

주 5)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념이 될 만한 경사스러운 일들을 골라 그린 풍속화. 벼슬을 지낸 인물의 공적을 기리고 중요한 벼슬생활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인생관과 출세관이 표현되어 있다. 주요 그림의 내용은 주로 들장미·글공부·혼인·과거급제·벼슬살이·회갑·회혼 등이다.

주 6) 조선 후기에 그려진 城市圖로써, 모두 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시도는 도성의 전경을 그린 것인데, 궁궐을 중심으로 사찰, 가게, 집 등의 건물과, 거리를 오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태평성대란 도성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성시도에 보이는 인물의 복식이나 건물의 모습은 중국적이거나 조선식의 풍속과 기물이 나타나고, 인물묘사나 세부필치를 보아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이수미, 2004).

주 7) 문인들의 자유로운 모임은 왕휘지가 중심이 된 ‘蘭亭修禊’에서 실현되었다고 보는데, 난정수계란 永和 9년(353년) 3월 3일에 會稽 山陰에 위치한 왕휘지의 별장 난정에서 회계 내사로 있었던 42명의 문사가 조분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을 일컫는다(송희경, 2008).

주 8) 두 책은 조선시대에 심었던 수종들을 열거하면서 식재 위치와 배식에 관련해 의기를 언급하였다. 장소와 배위에 따른 배식의 의기는 나무의 생리와 생태적 특성, 나무를 심은 뒤 입지 환경의 변화, 경관의 미주 여부, 그리고 미신이나 속설 또는 나무가 지닌 상징적 의미에 의해 좌우된 것으로 보이며, 부가적으로 풍수적 의미나 입지환경 등이 배식의 의기를 결정지는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헌

- 강신갑(1984). 寺苑의 造景樹 植栽傾向에 對하여: 全南地方의 五大寺 刹을 中心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신술(1990). 조선시대 괴석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연희(2007).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파주: 돌베개.
- 국립문화재연구소(2007). 독일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주)삼우아트.
- 김남철, 홍광표(1993). 삼보사찰의 조경수목 식재현황에 관한 연구. 사찰조경연구. 1: 39-42.
- 김남철, 홍광표(1995). 불국사의 조경수목 식재현황에 관한 연구. 사찰조경연구. 제3권.
- 김대중(2006). 화훼에 대한 서유구의 감수성과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11: 7-46.
- 김미영(1999). 괴석도에 나타난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림(2005). 경기도의 옛 지도와 기록화. 옛 그림속의 경기도. 수원. 경기문화재단. pp.159-221.
- 김정희(2009). 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 불화. 파주: 돌베개.
- 김종대(2001).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 김지호(2006). 괴석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東山房(1982). 續·朝鮮時代 逸名繪畫. 서울: 東山房.
- 리영순(2006). 동물과수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p.294.
- 문화재관리국역(1989). 중국 고대정원림의 분석. 팽일강. (주)계문사. p.180.
- 박경혜, 이예성, 양보경(2005).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 지도. 서울: 민속원.
- 부르그린드 옴만(2004). LA카운티 미술관 소장 <戊辰進圖圍屏>에 관한 연구: 기록자료와 장식성 표현. 미술사논단. 19: 187-223.
- 서유구. 雨草堂記. 楓石鼓篋集. 柳溪, 花菴記. 花菴隨錄. 花木品題. p.41.
- 송희경(2008). 조선 후기 아회도. 서울: 다할미디어
- 심우경(2006).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선호한 조경식물과 조경문화. 한국실학연구. 12: 92-93.
- 안대회(2004).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진단학보 97호.
- 안휘준(1988). 한국의 문인계획도와 계획도. 한국회화의 전통. 서울: 문예출판사.
- 오세영(2006). 「현대사와 불교」 본문 전 서시란 무엇인가. 파주: 살림.
- 熊谷宣夫(1932). 芭蕉夜雨圖考. 美術研究. 8: 9-20.
- 유주한, 홍광표, 이동훈(2010). 삼보사찰의 조경식물 및 식재특성. 한국조경학회지. 38(1): 119-128.
- 유홍준, 이태호(2000).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 조선시대 계획도와 전별시. 서울: 도서출판 학교재.

27. 이상희(1998).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본문 中 (3) 꽃말의 내용. 서울: 넥서스
28. 이선(2006).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와 꽃. 서울: 수류산방중심.
29. 이성규, 심상렬(1997). 우리나라 주요사찰의 조경수종 및 식재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개발연구 제5권.
30. 이수미(200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 병풍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 이수옥(1990a). 조선시대 파초도. 고미술. 25: 20-28.
32. 이수옥(1990b). 조선시대 파초도. 고미술. 26: 21-30.
33. 이양재(1996). 李商佐의 畫員家系四代考整. 한국고미술. 8·9월호: 106.
34. 이정아(2009). 김홍도·이인문의 차그림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차문화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이종목(1998). 조선시대 畵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제98호.
36. 이종목(2006). 조선의 문화공간. 서울: 휴머니스트.
37. 장연역(2007). 중국문명대시야 2 위안상페이. 서울: 김영사.
38. 장진희(2009). 꽃그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 張混,平生志而已 廣集, 권14. 문집총간: 270-578.
40. 전영옥(2004). 조선시대 怪石의 특성과 산수화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2): 1-12.
41. 정민(2003). 18세기 지식인의 玩物 취미와 지적 경향. 고전문학연구. 23집.
42. 정민(2005). 18·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취미. 한국한문학회연구. 35: 35-77
43. 정민(2007).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서울: 휴머니스트.
44. 정병모(2000). 한국의 풍속화. 과주: 한길아트.
45. 정봉구(2009). 朝鮮 後期 漢陽의 園林에 관한 연구: 京華士族의 園林記와 園林圖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6. 정약용(1936). 竹欄花木記. 與猶堂全書. 1집 14. 문집총간: 281-290
47. 최완수(2009). 겸재 정선 3. 서울: 현암사.
48. 최중세(2006). 붓 한 자루에 담긴 풍경. 서울: 도서출판 마음.
49. 하재호, 홍광표, 김남철(1997). 선암사의 조경수목 식재현황에 관한 연구. 사찰조경연구. 5: 53-54.
50. 허상현(2004). 전통사찰의 조경수 식재 실태연구: 불국사, 분황사, 기림사, 골굴사. 사찰조경연구. 10: 39.
51. 洪萬選, 山林經濟 卜居編
52. <http://blog.daum.net/rwk0215/13156825>
53. <http://blog.naver.com/jhon119/70869867>
54. <http://blog.naver.com/nkddi/100053065936>
55. <http://cafe.daum.net/jbj3909/JIcN/161?docid=>
56. <http://cafe.daum.net/kilsangsunwoun/CW9l/2?docid=1JNhul/CW9l/20091218121306&qhttp>
57. <http://ko.wikipedia.org>
58.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0846500>
59.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526400>
60. <http://soohyun.compuz.com/zboard/view.php?id=tajjboard1&no=5983>
61. http://www.npm.gov.tw/ko/collection/selections_02.htm?docno=621&catno=15&pageno=4
62. <http://blog.naver.com/97ptp?Redirect=Log&logNo=150085281715>
63. <http://blog.naver.com/nocleaf?Redirect=Log&logNo=90018225429>
64. <http://blog.naver.com/biosigma?Redirect=Log&logNo=20052028447>
65. http://100.naver.com/100.nhn?type=image&media_id=1407398&docid=741047
66. <http://www.sunamsa.or.kr/>
67. <http://100.naver.com/100.nhn?docid=737705>
68. <http://blog.naver.com/bucidol2?Redirect=Log&logNo=94375717>
69. <http://blog.naver.com/freebowl?Redirect=Log&logNo=40030578826>
70. <http://slowalker.net/130037881023>
71. <http://blog.naver.com/noelve798?Redirect=Log&logNo=90049403884>
72. <http://cafe.naver.com/jhhistory/1006>

원고접수: 2010년 5월 17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5월 26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